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96
------	-----

2011. 6. 24.
재정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6월 20일, 김희전위원외 60명
-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22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1.6.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희전 의원)

- 가. 제안이유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고액등록금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입안하여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

- 나. 주문

- 정부와 여당, 각 대학(교) 학장과 총장은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여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III.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나. 기 타 : 해당 없음.

- IV.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 교육과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각 정당

V.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결의안의 개요

- 본 결의안은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다수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즉각적인 정책의 실현을 요구하는 서울시의회의 정책 주요 결정과정에 있는 국회, 정부부처와 각 정당에 촉구하는 것임.

나. 대학(교) 및 등록금 현황

- 2010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모두 411개의 대학(교)이 있고, 여기에 재학된 재학생 수는 364만 4,158명에 이룸¹⁾.
- 이를 전국 가구수(약 1,733만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5 가구당 대학생 한명씩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대학 등록금은 가계의 주요 지출부담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분교를 포함한 전국 4년제 대학교의 2010년 연평균 등록금 평균은 약 683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인 추계예술대학교의 경우 연평균 895만원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음.
- 주로 선호하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등록금을 마련할 경우 학교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1년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등록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임²⁾.
- 결국, 이렇게 높은 대학등록금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개인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해 2011년 1분기 가계부채 총 규모 1,006조 6,000억원 가운데 학자금 대출규모는 약 5조 4,000억원으로 2010년 2조 6,000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에 2조 8,000억원이 급증하였음³⁾.
- 이에 따라, 등록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비관과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1) 2010 교육통계연보

2) 커피전문점의 시급 4,915원을 기준으로 사립대 한 학기 평균 등록금 388만원을 납부하려면 790시간(하루 8시간씩 100일) 일해서 번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며, 국립대의 경우 488시간 일해야 한 학기 등록금 납부가 가능함.

3) 한국은행 자료. 서울신문 6월 21일 자료 활용.

다. 결의안의 취지

- 지난 6월 20일 OECD가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이 탁월하고 대학교육 수준이 높다.'면서도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하고, 치열한 교육경쟁으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는 평등·사회통합 및 출산율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함.
- 과도한 등록금 부담이 사회전반적인 통합이나 미래를 위한 출산율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라고 판단됨.
-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고 진단하고, 반면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평균인 8.8%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결국,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열에 비해 교육에 투입되는 공공의 투자는 그 수준에 미달한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어, 교육의 상당부분을 가계가 직접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
- 또한, 청년 실업 문제와 연계된 최근의 등록금 문제는 단순한 등록금의 문제에서 벗어나, 청년 실업, 결혼 및 출산율 감소, 가계 부채와 경기 침체 등 각종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조속히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또한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92.3%가 현재의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⁴⁾, 직장인의 86.4%는 반값 등록금 정책 실행에 찬성하고 있어⁵⁾, 국민적 공감대도 일정 수준 이상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반값 등록금 문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VI.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II. 토론요지 :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IX. 소수의견 요지 :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원혜영의원-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도한 6월 9일자 언론보도 인용.

5)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도한 6월 22일자 언론보도 인용.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96
----------	-----

발의년월일 : 2011년 6월 20일

발 의 자 : 김희전 의원 외 60명

1. 주 문

정부와 여당, 각 대학(교) 학교장과 총장은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여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2. 제안이유

대학등록금 천만원시대에 고액등록금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입안하여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

3. 이송처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 교육과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 대학입학률은 2010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71%다. 2011년 현재 대학입학률은 80%에 넘어서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5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작년 기준 고교 졸업생의 81.9%가 대학에 진학했으며, 이들 350만 명의 대학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 대학생 1명이 내야 하는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인,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높은 등록금은 서민의 생활뿐 아니라 중산층의 삶을 위협한다. 우리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가 목숨을 끊거나 불법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있는 가슴 아픈 뉴스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생 자녀는 둔 학부모의 문제고, 대학생과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이런 교육 현실에서 최근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에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고액의 등록금이 안고 있는 교육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 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큰 희망을 발견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최근 일고 있는 반값등록금 촉구 운동의 목적과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문제인 고액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즉각 수립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대학(교) 학원장과 총장이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를 회복하여 대학생들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교) 차원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